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화순군 이동복지상담실 큰 호응

어디든지 부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도곡면 안한실 경로당과 사평면 대곡1리 경로당을 찾아가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 이동복지상담실은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지를 신청받아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모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회차까지 진행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1부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유익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부에서는 희망자 맞춤형 1:1 개별상담을 진행해 수급 자격은 있지만,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숨어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신

청·접수를 받기도 한다.

도곡면 안한실 경로당과 사평면 대곡1리 경로당에서는 1:1 맞춤 상담 희망자가 많아 순서를 정해 진행했다.

특히 안한실경로당 이동복지상담실에 참여한 김00(84세) 어르신은 “경로당까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어르신 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동안 속앓이를 해 왔던 것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을 이용한 어르신이 한 분이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보람된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흐뭇한 모습을 보면 함께 뿌듯함이 느껴진다.”라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언제든지 불러주면 찾아가갈 예정이니 이동복지상담실을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05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나주시, C형간염 무료 항체 검사

선착순 300명...신분증 지참해 보건소 방문

나주시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무료 항체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됐을 때 이에 대응하는 신체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질환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된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급·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돼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발병될 수 있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는 올해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 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경로당 4곳, 한센인 마을 2곳에 찾아가는 전수 검사와 보건소 내방을 통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나주시 보건소 임상병리실을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1주일 후 문자로 발송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40세 이상 시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고 국가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감염이 될지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가 필수인 질환”이라며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담빛수영장 재단장

담양군이 군민에게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담빛수영장을 개선하고 있다.

군은 먼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관련 전문체육인(센터장)을 채용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습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별 강습반을 확대 및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장 수질정화 시간과 횡수를 단축했으며, 앞으로 생존수영 교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개설, 수영대회 개최, 친절 우수직원 선발 등 다방면의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고자 한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분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분만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임신부 17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상반기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 제공

아울러 수영장 정원에 화초류를 심어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해 모든 군민이 편하게 방문하고 휴식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병노 군수는 “새롭게 단장한 담빛수영장을 통해 앞으로 많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빛수영장은 지난 2018년 8월에 개장해 성인에서 유아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춰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2년 3월 담빛헬스장 시설까지 갖추어 군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정진성 기자

영광군,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분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분만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임신부 17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상반기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보건교육관에서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에 대한 이해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병 예방 임신부·영유아 영양관리 △아기용품 만들기(마크라메 가방, 뒤집기 방지쿠션, 아기베개,

애착 인형, 아기 담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건강교육이 임신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준비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확대

장성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할 4기 ‘액션그룹’을 23일까지 모집한다.

△홍보(촬영·디자인) △문화(문화·예술) △관광 △환경(환경·산림) 4개 분야,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10명 이상이 결성한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앞선 지난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축령산 숲배움터가 테마로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 인증(LEAF)’을 획득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업에도 포함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마을여행사 ‘올로와장성’은 체류형 숲 여행 프로그램, 지역 수공예 제품을 파는 ‘봄봄 프리마켓’ 등 개

성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뜬해진 관광자원을 되살리는 데도 힘썼다. 금곡영화마을과 홍길동테마파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숲 가치 보전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이번 4기 ‘액션그룹’은 신규그룹은 물론 기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그룹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자부담 20% 포함 2천~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문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s3949002@naver.com)로 전송하거나, 사업단 사무실(홍길동테마파크 전시관, 황룡면 아곡리 384)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광종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